

## 경기

- 서울 5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87.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8%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9%, 경공업부문은 26.8% 감소
  - 서울의 5월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77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로 전월대비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5% 하락, 서비스는 0.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6% 하락

## 고용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5,316천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서울의 5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0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천명(1.6%)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0천명(1.8%), 여자는 29천명(1.3%)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전국대비(-2.4%) 0.5%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상승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4.6%로, 남자는 보험인 5.0%, 여자는 0.8%p 상승한 3.9% 나타남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0.4%, 여자는 50.8%로 1.1%p, 0.4%p 상승
  - 서울의 실업률(4.6%)은 전국 실업률(3.2%)과 1.4%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60.3%)과 전국(60.1%)이 0.2%p 차이를 보임

## 부동산

- 서울의 5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6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7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박물관, 사무실, 치수 공사 등의 수주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토지조성, 공장 신축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0.1%)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북지역(0.1%)은 종로구(0.7%), 광진구(0.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0.0%)은 동작구(0.1%), 금천구(0.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0.4%)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 강북지역(0.4%)은 광진구(0.8%), 도봉구(0.7%)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0.4%)은 구로구(1.4%), 관악구(0.9%)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금융

- 서울지역 4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2조 2,478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6조 3,163억원(1.18%) 증가
-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중 신설법인수는 1,844개로 전년동월대비 10.49%(175개) 증가
- 서울의 5월 신설/부도법인 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5월 중 신설/부도법인 비율은 34.8배로 전월(38.1배)보다 하락
- 서울의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서울의 수출은 46.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의 순
  - 5월 서울의 수입은 109.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 생 · 산 |

##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는 87.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8%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9%,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6.8%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33.9%), 기타제품(39.6%)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26.1%), 기계장비(-32.6%) 등에서 감소
- 주로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짐

## ■ 전국의 5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5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로 23개월 연속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20.3%), 기계장비(13.3%), 자동차(10.5%) 등은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18.0%), 비금속광물(-4.9%), 인쇄 및 기록매체(-15.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2.7%), 전문·과학기술(-1.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9.3%), 도매소매(6.4%), 보건·사회복지(5.9%) 등에서 증가하여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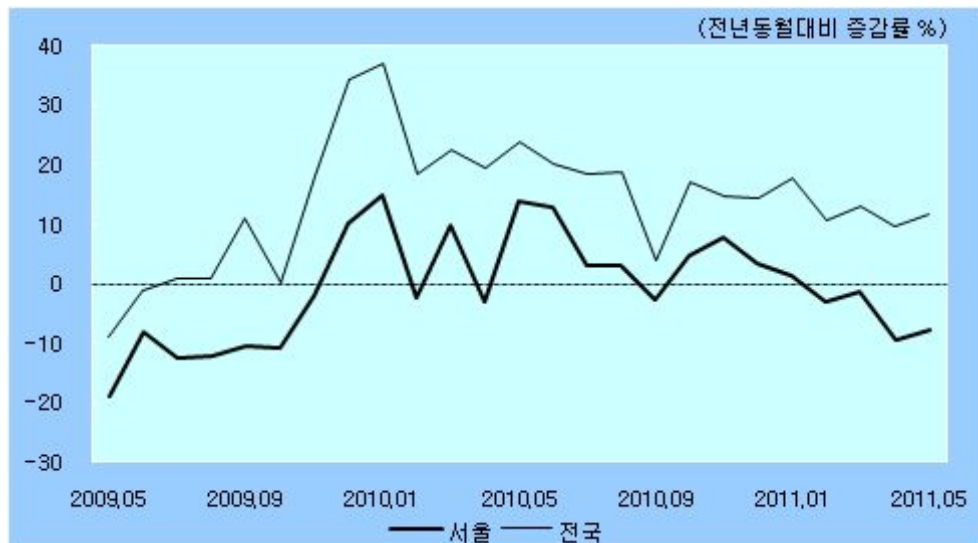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3.8	1.5	-2.9	-1.4	-9.3	-7.8
	중공업	8.7	2.3	4.7	-8.5	-12.4	-26.8
	경공업	16.8	1.3	-6.1	1.8	-7.9	2.3
	전국	23.9	17.6	10.7	12.9	9.7	11.6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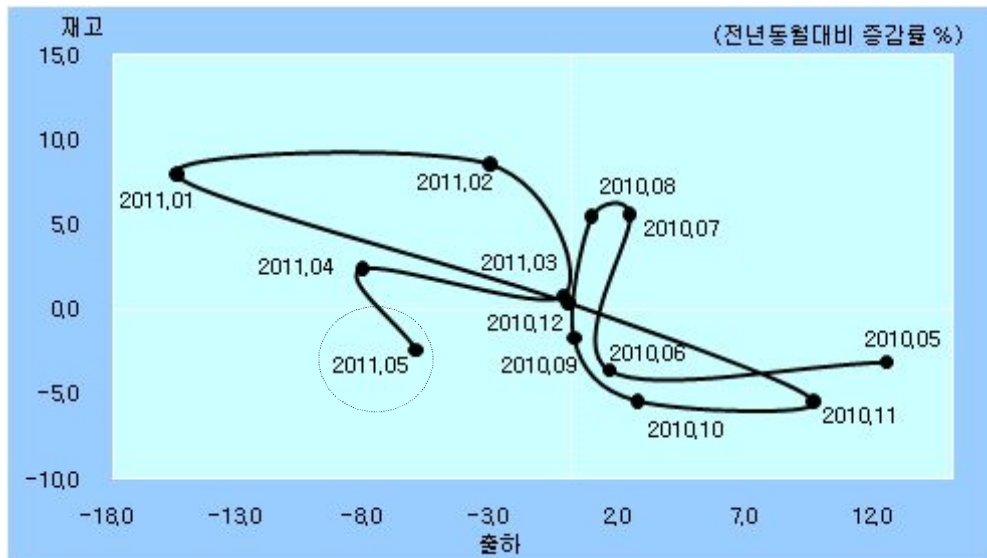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5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 서울의 5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증가, 재고 감소

-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49.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서울의 5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68.8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6.8%로 전월대비 0.5%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3.0% 감소한 166.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9%p 증가한 163.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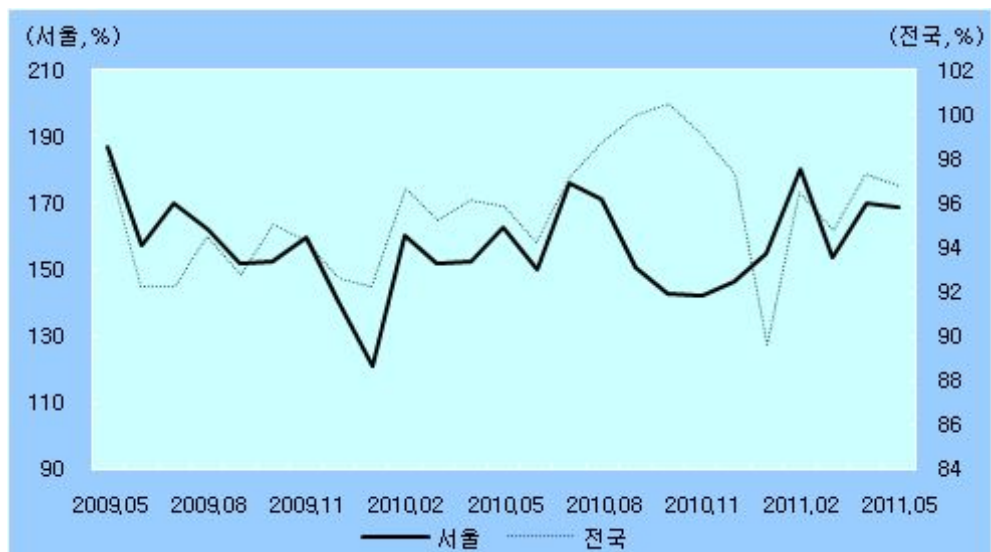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재고율	서울	162.5	154.7	180.0	153.4	169.9	168.8	-1.1
	중공업	167.8	179.2	162.1	173.9	189.4	166.4	-23.0
	경공업	159.1	141.2	184.8	141.8	158.0	163.9	5.9
	전국	95.9	89.6	96.5	94.8	97.3	96.8	-0.5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77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8% 증가, 대형마트 5.2% 증가로 전체적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3,60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대형마트는 4.1%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9.9%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5.4%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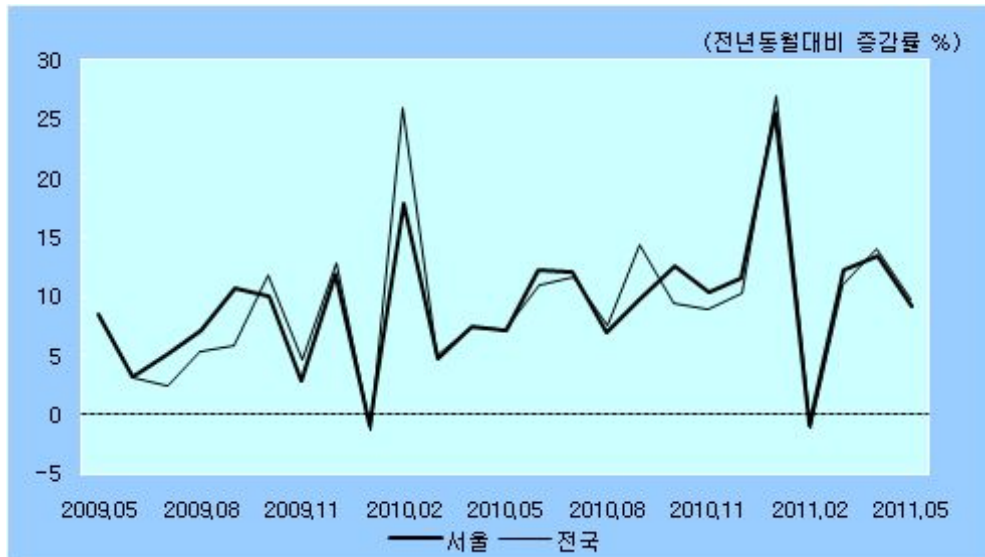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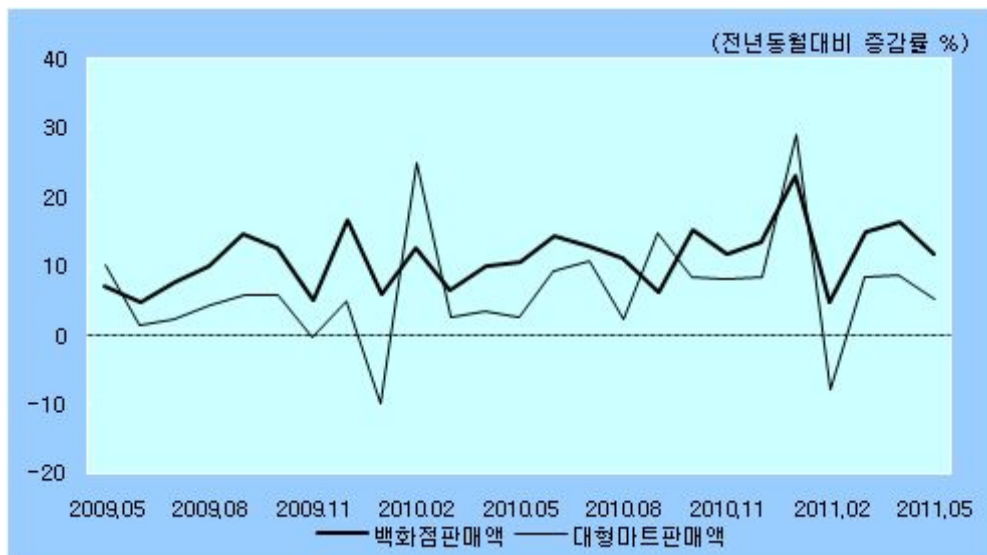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판매액	서울	1629.7 (7.1 )	1977.3 (25.5)	1517.3 (-0.8)	1714.3 (12.2)	1750.3 (13.4)	1777.5 (9.1)
	백화점	956.6 (10.5)	1171.2 (23.2)	896.9 (4.8)	1026.3 (14.9)	1090.4 (16.5)	1069.6 (11.8)
	대형마트 (할인점)	673.1 (2.7)	806.0 (29.0)	620.4 (-7.9)	687.9 (8.5)	659.9 (8.6)	707.8 (5.2)
	전국	4884.0 (7.2)	5992.9 (26.9)	4724.1 (-1.2)	5093.3 (10.9)	5136.5 (14.1)	5360.5 (9.8)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2005년=100.0)으로 전월대비 0.1%(전도시:0.0%), 전년동월대비 3.8%(전도시:4.1%) 각각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5.7%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

## ■ 서울의 5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도시:-0.4%) 하락, 전년동월대비 3.2%(전도시:3.8%)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6% 하락(전도시:-9.0%), 전년동월대비 0.7%(전도시:1.3%) 상승

## ■ 전국 5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보합

- 전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년=100)로 전월대비 보합세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0% 하락,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대구 등 7개 시도는 0.1~0.2%씩 상승하였고, 광주와 경기도는 변동이 없었으며, 부산, 대전 등 7개 시도는 0.1~0.2%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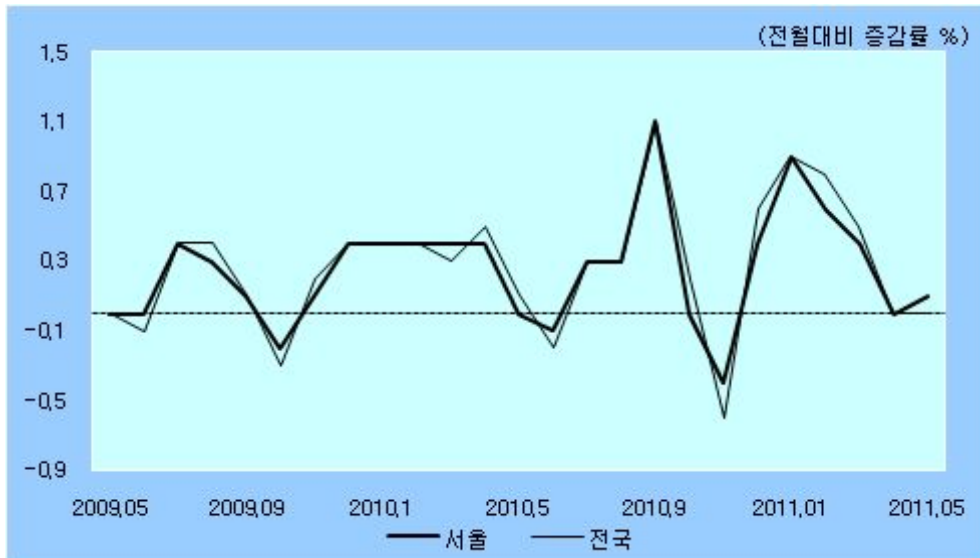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서울		0.0 (2.5)	0.4 (3.3)	0.9 (3.9)	0.6 (4.1)	0.4 (4.2)	0.0 (3.7)	0.1 (3.8)
	상품 성질별	상품	-0.3 (3.1)	1.1 (5.3)	1.7 (6.4)	0.9 (7.1)	0.8 (7.3)	-0.4 (6.0)	-0.5 (5.7)
		서비스	0.2 (2.2)	0.1 (2.1)	0.6 (2.5)	0.4 (2.6)	0.1 (2.4)	0.3 (2.5)	0.3 (2.6)
	생활물가		-0.3 (2.6)	0.4 (3.2)	1.4 (4.1)	0.8 (4.5)	0.2 (4.1)	-0.2 (3.3)	-0.3 (3.2)
	신선식품		-4.2 (7.9)	1.3 (29.9)	4.3 (27.2)	-0.3 (23.0)	-0.3 (16.9)	-4.1 (5.5)	-8.6 (0.7)
	전국		0.1 (2.7)	0.6 (3.5)	0.9 (4.1)	0.8 (4.5)	0.5 (4.7)	0.0 (4.2)	0.0 (4.1)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서울의 5월 채소류인 쌀과 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 하락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7.94% 하락,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0.01% 상승
- 품목별로는 파는 47.9%, 파는 31.3%, 양파는 11.4% 각각 하락하였으며 무는 1.6%, 쌀은 0.5% 하락
- 가격이 하락한 대부분의 품목은 채소류로 겨울로 인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세인 것으로 판단됨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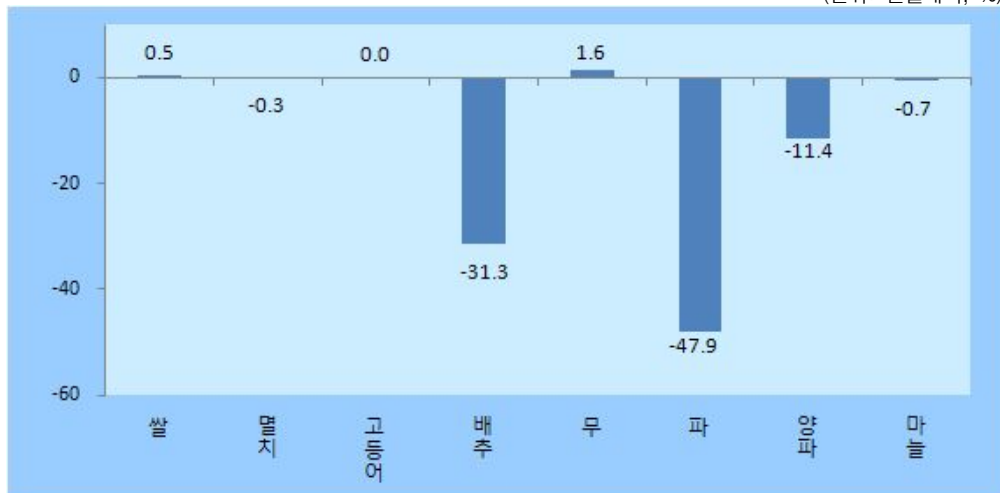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률
양곡	쌀	42,435	39,109	39,046	41,609	42,461	41,700	-1.8
수산	멸치	2,543	2,677	2,428	2,615	2,592	2,380	-8.9
	고등어	2,714	3,545	3,674	4,000	4,000	4,000	0.0
채소	배추	7,679	3,908	3,404	4,728	4,805	4,677	-2.7
	무	4,069	2,849	2,655	4,728	4,805	4,677	-2.7
	파	5,927	4,974	4,181	4,302	4,238	3,669	-15.5
	양파	1,726	1,910	1,802	1,962	2,307	2,365	2.5
	마늘	12,329	11,121	8,866	6,863	6,986	6,727	-3.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15세 이상 인구는 8,4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0.4%)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3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명(2.0%)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0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명(-2.2%)이 감소

## ■ 전국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5월 15세이상인구는 41,0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0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4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1천명(1.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95천명으로 161천명(1.1%)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684천명으로 220천명(2.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2.3 (0.5)	2.7 (0.5)	1.4 (-1.2)	2.4 (1.2)	3.0 (0.9)	1.8 (0.4)	2.0 (0.6)
	남자	0.4 (-0.3)	1.4 (0.2)	0.1 (-1.2)	1.3 (1.1)	2.2 (1.2)	1.6 (0.3)	1.8 (-0.1)
	여자	5.0 (1.5)	4.5 (1.0)	3.2 (-1.1)	3.8 (1.3)	4.1 (0.3)	2.2 (0.4)	2.2 (1.5)
	전국	1.8 (1.0)	2.0 (-1.2)	0.1 (-1.7)	1.6 (1.3)	2.2 (2.0)	1.5 (1.3)	1.5 (1.0)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2.2	62.1	61.4	62.1	62.6	62.8	63.2
	남자	73.0	73.2	72.3	73.1	74.0	74.2	74.1
	여자	52.1	51.7	51.1	51.8	51.9	52.1	52.9
	전국	61.9	60.1	59.0	59.8	60.9	61.6	62.1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 · 업 · 자 |

##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0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천명(1.6%)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0천명, 여자는 2,2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0천명(1.8%), 여자는 29천명(1.3%)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29.1%), 건설업 30천명(8.2%), 전가운수통신금융업 41천명(5.2%),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75천명(3.9%)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51천명(-3.7%), 제조업 18천명(-3.2%)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전국대비(-2.4%) 0.5%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 전국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5월 취업자는 24,6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5천명(1.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1천명(1.2%) 증가하였고, 여자는 10,375천명으로 184천명(1.8%)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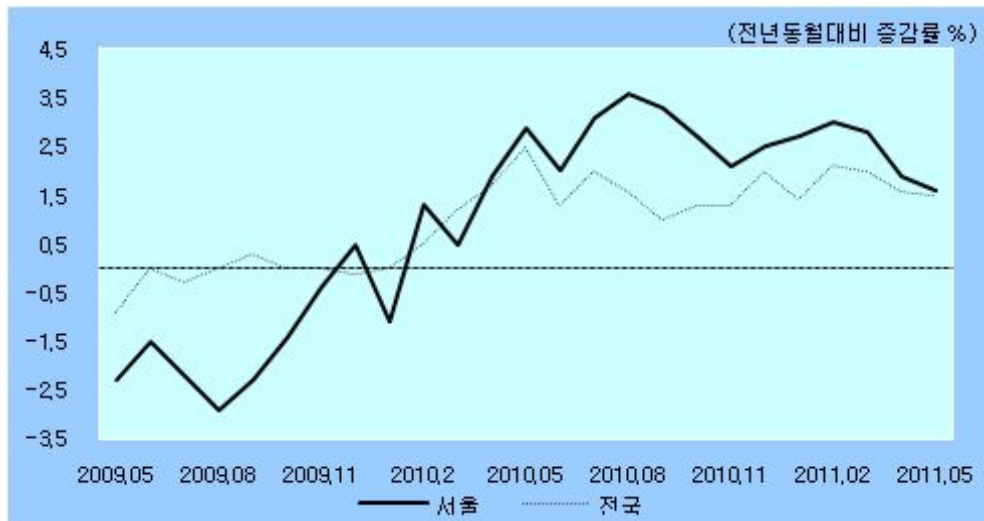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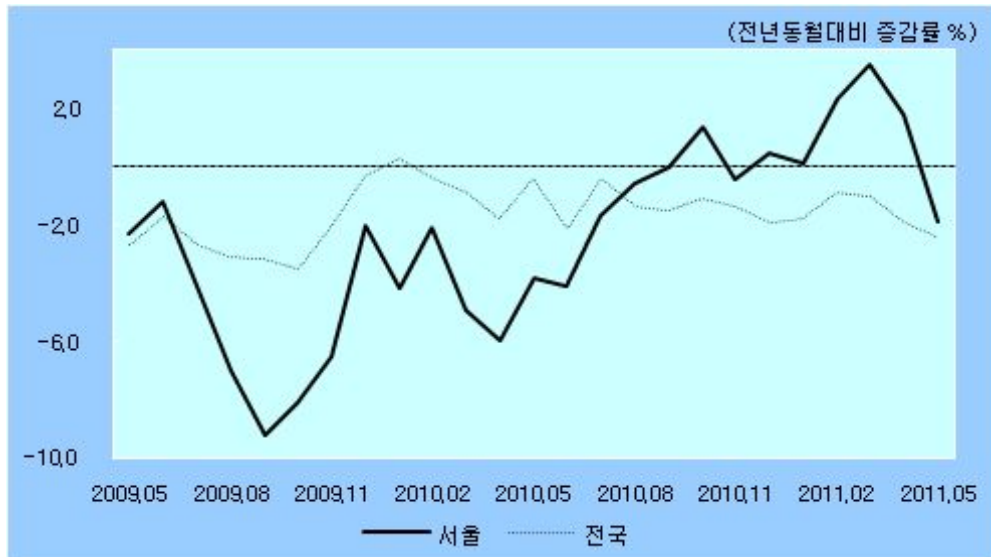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서울	2.9 (1.4)	2.5 (0.3)	2.7 (-1.7)	3.0 (0.7)	2.8 (0.7)	1.9 (0.8)	1.6 (1.0)
	남자	0.6 (0.9)	1.0 (0.6)	1.5 (-1.9)	1.9 (0.5)	2.0 (1.2)	2.1 (0.7)	1.8 (0.6)
	여자	6.0 (2.1)	4.5 (0.0)	4.4 (-1.4)	4.5 (0.9)	3.9 (0.0)	1.8 (1.0)	1.3 (1.7)
	전국	2.5 (1.6)	2.0 (-1.8)	1.4 (-2.1)	2.1 (0.6)	2.0 (2.2)	1.6 (1.9)	1.5 (1.5)
청년층 취업자	서울	-3.8 (4.4)	0.5 (3.4)	0.1 (-1.2)	2.3 (1.1)	3.5 (-1.9)	1.8 (0.9)	-1.9 (0.7)
	전국	-0.4 (3.1)	-1.9 (0.1)	-1.8 (1.3)	-0.9 (-1.5)	-1.0 (-1.8)	-1.9 (1.0)	-2.4 (2.5)
고령층 취업자	서울	16.2 (2.9)	2.5 (-1.0)	10.4 (-3.2)	12.5 (2.6)	8.1 (3.9)	2.7 (-0.7)	4.3 (4.5)
	전국	5.8 (4.8)	5.8 (-9.6)	4.6 (-9.0)	6.4 (4.8)	7.1 (13.5)	4.6 (6.9)	4.4 (4.6)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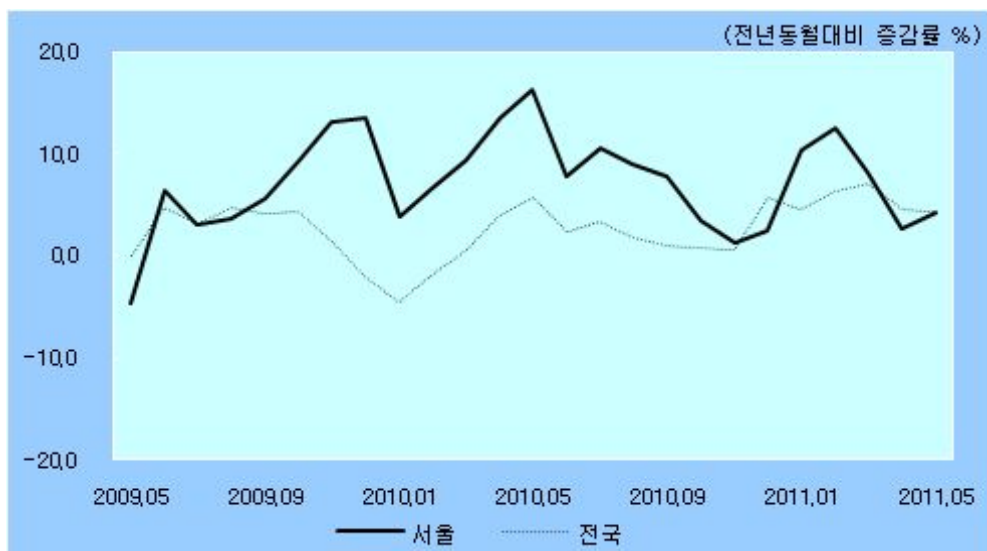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25.8%), 사무종사자 112천명(13.0%),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0천명(0.7%)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3천명(-1.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2천명(-1.6%)이 각각 감소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1,183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891천명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3.3%),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1.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83천명(8.7%)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3천명(-5.0%), 일용근로자는 4천명(-0.8%)이 각각 감소

#### ■ 서울의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5.0%)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4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천명(2.3%)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11.3%)이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4천명(-1.1%)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0천명(3.1%)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8천명(0.5%)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24.8%)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별	제조업	0.5 (-0.1)	3.1 (-2.1)	-0.9 (-3.7)	1.3 (4.3)	-5.0 (-3.1)	-7.6 (0.3)	-3.2 (4.5)
	SOC 및 기타서비스업	3.2 (1.6)	2.4 (0.7)	3.1 (-1.4)	3.2 (0.3)	3.7 (1.1)	3.1 (0.9)	2.1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5 (2.0)	5.3 (0.7)	8.0 (-1.4)	7.4 (1.1)	6.4 (0.5)	4.1 (1.3)	3.9 (1.8)
	도소매·음식숙박	2.8 (2.4)	-4.6 (1.1)	-5.6 (-1.6)	-4.8 (-0.4)	-0.4 (2.8)	-0.2 (-0.8)	-3.7 (-1.3)
	전기·운수·통신·금융	3.3 (0.0)	4.8 (0.9)	3.8 (0.0)	3.5 (0.0)	2.6 (-1.7)	4.1 (2.2)	5.2 (1.0)
	건설업	-2.2 (0.2)	9.3 (-1.5)	11.7 (-3.9)	13.5 (-0.9)	8.6 (4.3)	8.1 (2.0)	8.2 (0.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2 (0.0)	-0.1 (1.7)	0.4 (-0.6)	1.7 (0.7)	1.4 (-0.6)	-1.6 (-1.0)	0.7 (2.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0.4 (2.5)	8.0 (-0.3)	9.2 (-3.6)	8.8 (2.8)	3.9 (1.2)	0.8 (0.9)	-1.6 (0.1)
	서비스·판매종사자	-0.9 (1.5)	-3.1 (0.1)	-5.1 (-0.9)	-4.9 (-1.6)	-2.7 (0.5)	-1.2 (0.5)	-1.8 (0.9)
	사무종사자	-0.3 (1.8)	6.4 (-0.2)	8.9 (-1.3)	8.0 (0.4)	11.4 (2.0)	14.2 (3.8)	13.0 (0.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3 (4.2)	4.3 (0.6)	5.1 (-2.2)	5.4 (0.9)	4.7 (0.4)	3.6 (0.9)	1.8 (3.1)
	비임금근로자	-1.3 (-1.0)	-3.0 (-0.5)	-4.3 (0.1)	-3.9 (-0.1)	-3.0 (1.6)	-3.1 (0.5)	-1.2 (-3.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고용률 각각 상승

## ■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11.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3천명, 여자는 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천명(2.9%), 여자는 20천명(28.4%)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 여자는 3.9%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동일하였고, 여자는 0.8%p 상승

## ■ 전국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5월 실업자는 8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3.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2.0%) 감소하였고, 여자는 3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13.1%) 증가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2.9%로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

## ■ 서울 및 전국의 5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 여자는 50.8%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1%p, 0.4%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2%p 차이
- 전국의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2%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상승

〈표〉 서울의 실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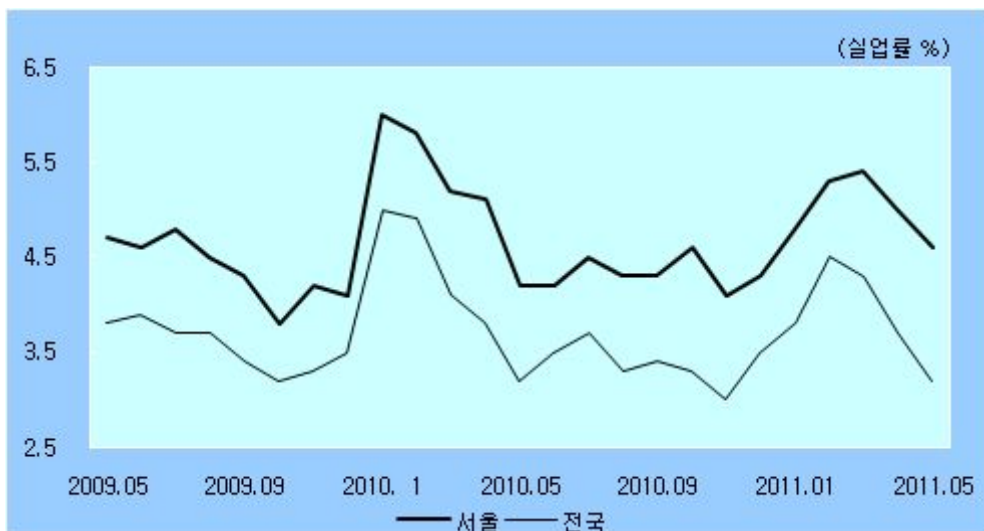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업률	서울	4.2	4.3	4.8	5.3	5.4	5.0	4.6
	남자	5.0	4.8	5.4	5.9	6.0	5.6	5.0
	여자	3.1	3.6	4.0	4.3	4.7	4.1	3.9
	전국	3.2	3.5	3.8	4.5	4.3	3.7	3.2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8	10.0	8.1	7.7	8.0	9.3
	전국	8.1	7.6	9.5	7.7	7.6	7.1	8.8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1.7	7.2	4.3	3.1	2.7	5.3
	전국	1.6	1.5	5.8	2.1	2.0	1.9	4.5

주: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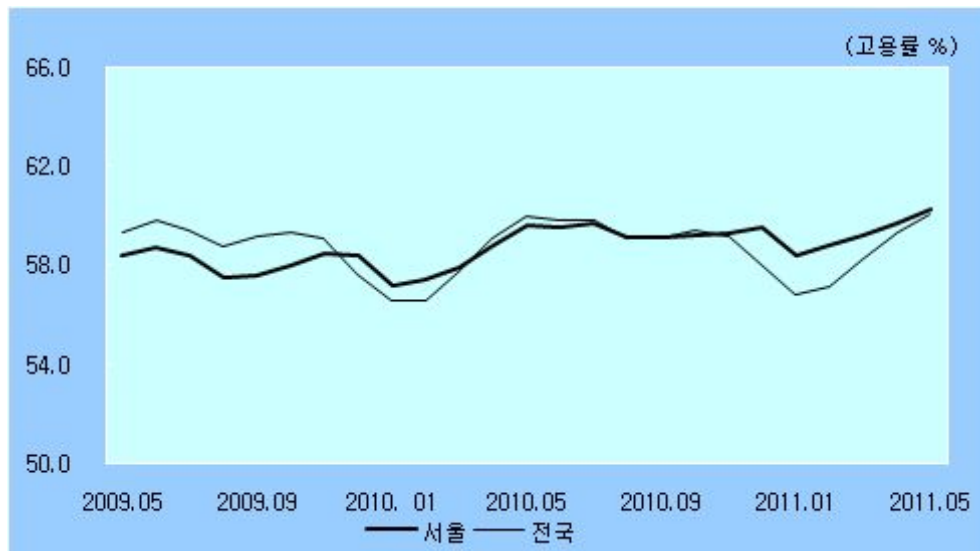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고용률	서울	59.6	59.5	58.4	58.8	59.2	59.7	60.3
	남자	69.3	69.7	68.4	68.7	69.5	70.0	70.4
	여자	50.4	49.8	49.1	49.5	49.5	50.0	50.8
	전국	60.0	58.0	56.8	57.1	58.3	59.3	60.1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8	42.8	42.8	44.1	44.0	43.7	44.4
	전국	40.7	40.1	40.1	40.8	40.6	39.9	40.0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1	32.5	29.4	32.7	32.7	32.0	31.3
	전국	38.9	36.4	31.4	38.4	38.2	35.8	32.0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5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5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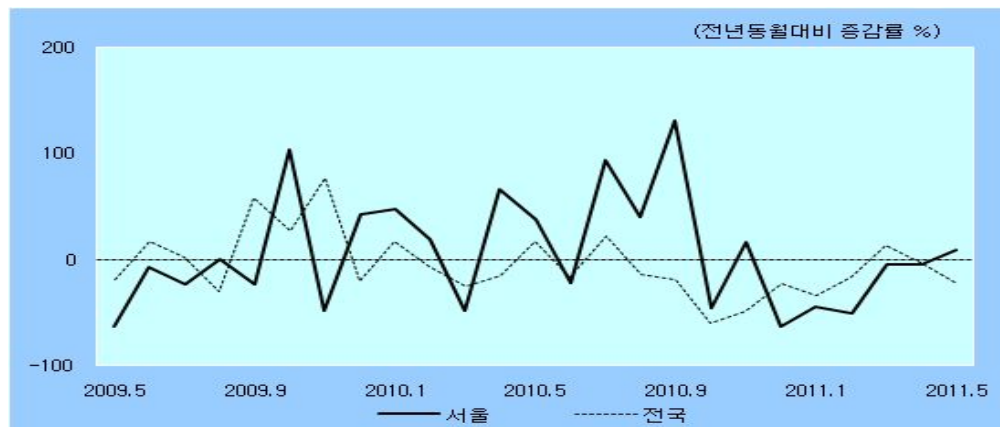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672십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박물관, 사무실, 치수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 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토지조성, 공장 신축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공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축부문은 8.3%, 토목부문은 17.3% 각각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753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서울	1,533	519	642	1,068	1,006	1,672	9.1	66.2
발주자별	공공	31	141	35	177	61	46	48.4
	민간	1,430	359	580	891	927	1,313	-8.2
공종별	건축	1,406	497	605	1,049	944	1,523	8.3
	토목	127	22	37	19	62	149	17.3
전국	8,717	4,658	3,959	7,179	6,459	6,753	-22.5	4.6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가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상승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
-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전월대비 보합,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전월대비 0.2%, 0.1% 소폭 상승

## ■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0.7%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물량부족과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각각 1.2%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월대비 소폭 축소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서울		102.8	102.1	102.2	-0.6	0.1
아파트		102.4	100.9	100.9	-1.5	0.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2.0	101.1	101.1	-0.9	0.0
	강남	103.7	103.2	103.2	-0.5	0.0
전국		102.4	106.6	107.3	4.8	0.7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북지역은 종로구와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노원구는 소폭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종로구는 아파트는 소폭 하락했으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의 매매전환 수요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0.7% 상승
- 광진구는 아파트의 보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0.5% 상승
- 용산구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0.1% 소폭 하락

#### ■ 강남, 전월대비 보합

- 강남지역은 동작구와 금천구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강동구와 강남구는 하락하여 전월대비 보합
- 동작구는 역세권 소형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0.1% 소폭 상승
- 강동구는 매수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양도세 완화 등으로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매매전환수요도 감소하면서 0.2% 하락
- 송파구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대형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면서 0.1% 소폭 하락

####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802.22만원으로 전월(1,804.98만원)대비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86만원), 서초구(2,883만원), 용산구(2,550만원), 송파구(2,399만원), 양천구(1,940만원), 광진구(1,879만원), 강동구(1,85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2만원), 도봉구(1,100만원), 중랑구(1,130만원), 강북구(1,13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전월대비 상승폭은 둔화되며 0.4% 상승

- 강북지역은 광진구, 도봉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0.4% 상승
- 광진구는 정부의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에 관망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8% 상승
- 도봉구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신혼부부, 직장인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7% 상승
- 강남지역은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 주로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어 전월대비 0.4% 상승
- 구로구는 개봉동 재건축에 따른 잔여 이주수요와 구로동 일대의 근로자 및 신혼부부 수요 증가에 따라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1.4% 상승
- 관악구는 서울의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격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수요와 기존세입자이 해당 지역에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전월대비 0.9% 상승
- 금천구는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전세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소형을 중심으로 근로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0.8% 상승

## ■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이사철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월대비 0.8%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어 전월대비 0.8% 상승
- 서울과 인천,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어 각각 0.4%, 0.1%, 0.5%로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각각 전월대비 1.1%, 1.0%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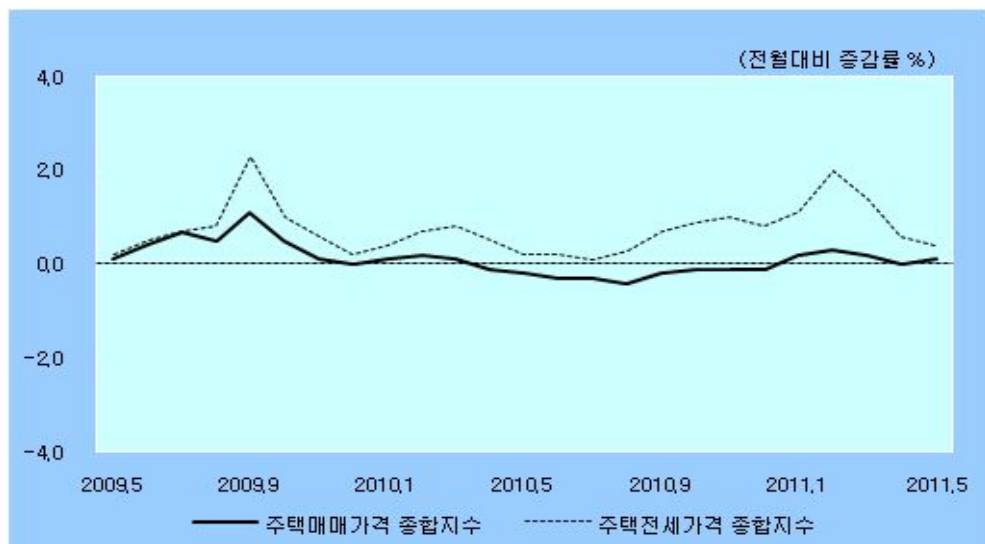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서울	108.8	118.1	118.6	9.0	0.4
아파트	111.4	122.8	123.2	10.6	0.3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6.4	114.5	8.1	0.4
	강남	111.1	121.8	10.1	0.4
전국	106.1	116.9	117.8	1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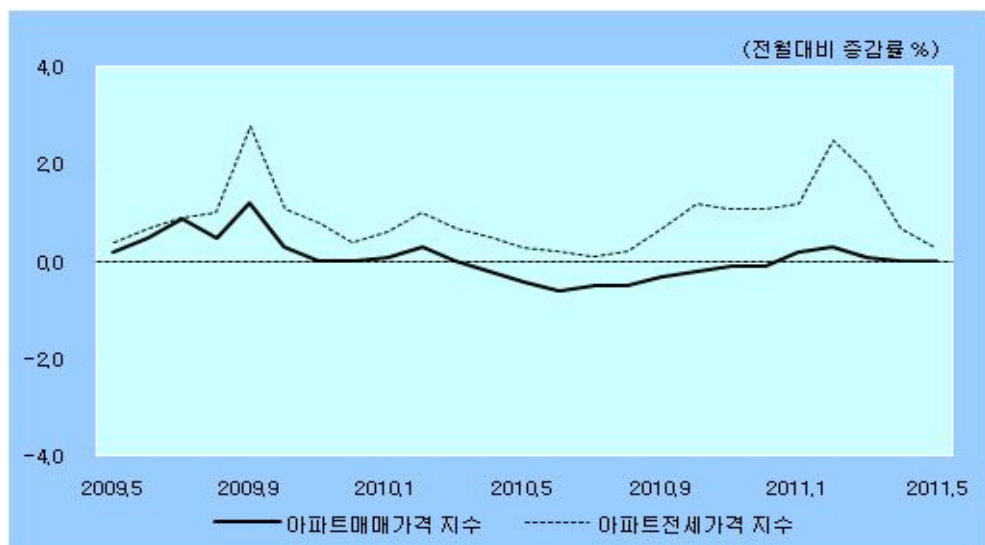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5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0%로 전월(46.8%)보다 0.2%p 소폭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5월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9.0%보다 12.0%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0%p)과 동일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9.7%, 강남 44.8%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5월 코스피 큰 폭으로 하락

## ■ 5월 중 국고채는 전월대비 하락

- 5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유로지역 재정문제 재부각,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0.08% 하락

##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

- 5월 중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10%p 하락하여 5월 중으로 4.44%로 마감
- 5월 중 CD(91일) 금리는 전월대비 0.06% 소폭 상승하여 5월 중으로 3.46%로 마감

##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감소

- 5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장기) 금리의 하락과 CD(단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14%p 하락하여 0.20%로 마감

## ■ KOSPI 지수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5월 중 코스피는 유로지역 재정문제, 중국의 추가긴축 및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미국 연중의 2차 양적완화정책(QE2)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5월 중으로 2,121.87p로 마감

## ■ 5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 5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3.3원 소폭 하락하여 5월 중으로 1,083.54원으로 마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B-A)
		5월	1월	2월	3월	4월(A)	5월(B)	
금 리	국고채(3년)	3.70	3.71	3.94	3.74	3.74	3.66	-0.08
	CD(91일물)	2.45	2.93	3.13	3.35	3.40	3.46	0.06
	콜금리(1일)	2.01	2.66	2.75	2.92	3.01	3.02	0.01
	장·단기 금리차1)	1.25	0.78	0.81	0.39	0.34	0.20	-0.14
주 가	KOSPI	1,648.3	2,091.61	2,002.87	2,002.67	2,153.13	2,121.87	-31.26
	KOSDAQ	497.85	528.60	517.58	510.59	528.44	494.71	-33.73
환율 (W/US\$)		1,168.4	1,120.07	1,118.14	1,122.45	1,086.84	1,083.54	-3.3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CD

자료: 한국은행

## ■ 5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5월중 중 은행 가계대출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월보다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집단대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 수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꾸준히 증가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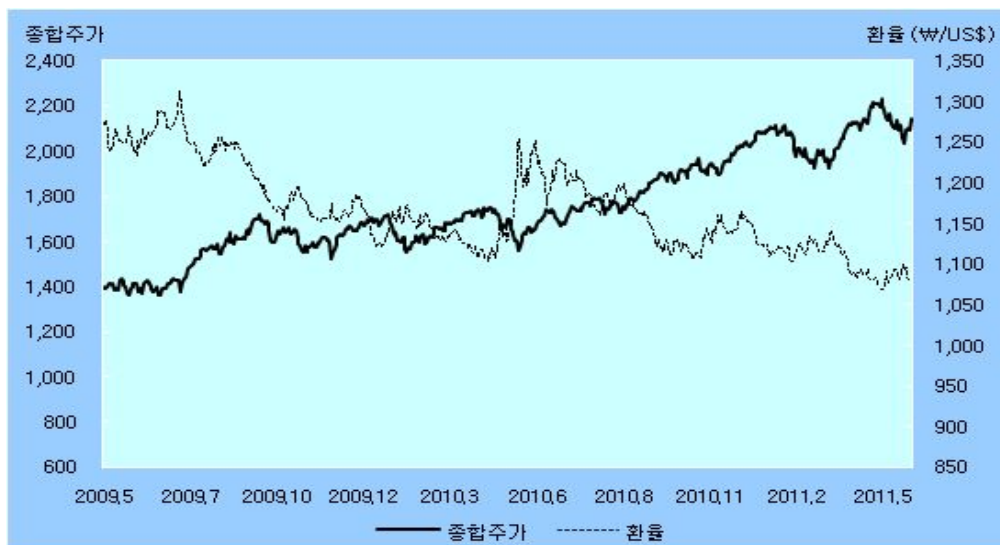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월말잔액	
		연중	5월	2월	3월	4월	5월	2011년	
								4월	5월
가계대출1)		21.8	4.4	1.5	1.7	2.5	3.3	436.6	439.8
주택담보대출2)		20.3	1.7	1.8	2.1	2.4	1.4	292.3	293.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7	2.7	0.4	-0.4	0.2	1.9	143.4	145.3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 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4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2조 2,478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6조 3,163억원(1.18%) 증가
- 4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55조 7,208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 172억원(0.97%)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예금은행	419,168.0	426,698.5	429,612.8	432,527.1	438,889.2	6,362.1	1.47
	비은행기관	94,887.5	99,856.6	103,842.7	103,404.4	103,358.6	-45.8	-0.04
	합계	514,055.5	526,555.1	533,455.5	535,931.5	542,247.8	6,316.3	1.18
전국	예금은행	967,784.2	993,802.1	1001,239.2	1,008,342.8	1,020,032.7	11,689.9	1.16
	비은행기관	310,865.2	329,769.4	334,196.5	334,360.8	335,688.1	1,327.3	0.40
	합계	1,278,649.4	1,323,571.5	1,335,435.7	1,342,703.6	1,355,720.8	13,017.2	0.97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5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44개로 전년동월대비 10.49%(175개) 증가, 전월대비 8.76%(177개) 감소
- 5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189개로 전년동월대비 13.67%(624개) 증가, 전월대비 7.06%(394개) 감소

## ■ 서울의 5월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중 서울의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5.79%(203개), 10.0%(12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18.68%(48개)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669	2,055	2,021	1,844	-177	-8.76	175	10.49
서비스업	1,286	1,677	1,671	1,489	-182	-10.89	203	15.79
제조업	257	222	258	209	-49	-18.99	-48	-18.68
건설 및 설비업	120	131	131	132	1	0.76	12	10.00
전국	4,565	5,756	5,583	5,189	-394	-7.06	624	13.67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의 5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전월대비 감소

##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감소

- 5월 중 서울과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각각 전월대비 0.01%, 0.04%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3개로 전월대비 보합,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3개로 전월대비 8.2%(11개)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4.8배로 전월(38.1배)보다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0.3배로 전월(55.3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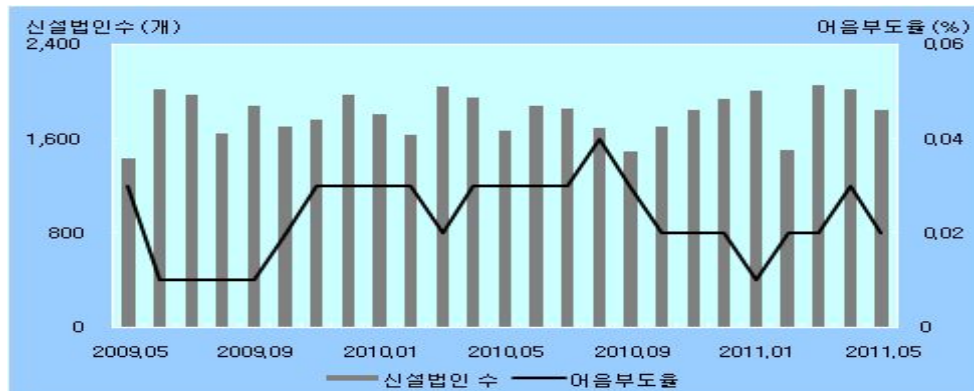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3	0.02	-0.01	-33.3	
	부도업체 수	45	45	51	53	53	0.0	0.0	
	신설/부도법인배율	37.1	33.3	40.3	38.1	34.8	-5.5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6	0.02	-0.04	-66.7	
	부도업체 수	120	99	120	134	123	-11	-8.2	
	신설/부도법인배율	47.6	55.2	72.0	55.3	60.3	-16.7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서울의 5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월대비 증가

## ■ 보증지원 금액 증가 및 건수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5월 중 2,862건, 86,412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7% 감소, 보증금액 8.4%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4.0% 증가하였으며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0.6%, 26.2%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 월 비		(전년동월비)	
	5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건 수	5,791	2,054	3,038	3,004	2,862	-142	-4.7	-2,929	-50.6
금 액	117,045	40,038	65,787	79,711	86,412	6,701	8.4	-30,633	-26.2
건당평균금액	20.2	19.5	21.7	26.5	30.2	3.7	14.0	10.0	49.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 지원 비중 상승

- 5월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42.4%로 전월(39.6%)대비 2.8%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18.1%로 전월(18.6%)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9.1%로 전월(37.6%)대비 1.5%p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종은 22.7%로 전월(24.2%)대비 1.5%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 타	합 계
건 수	232	1,120	602	648	260	2,862
비 율	8.1	39.1	21.0	22.7	9.1	100.0
금 액	9,405	36,675	15,527	15,636	9,169	86,412
비 율	10.9	42.4	18.0	18.1	10.6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소기업 지원 비중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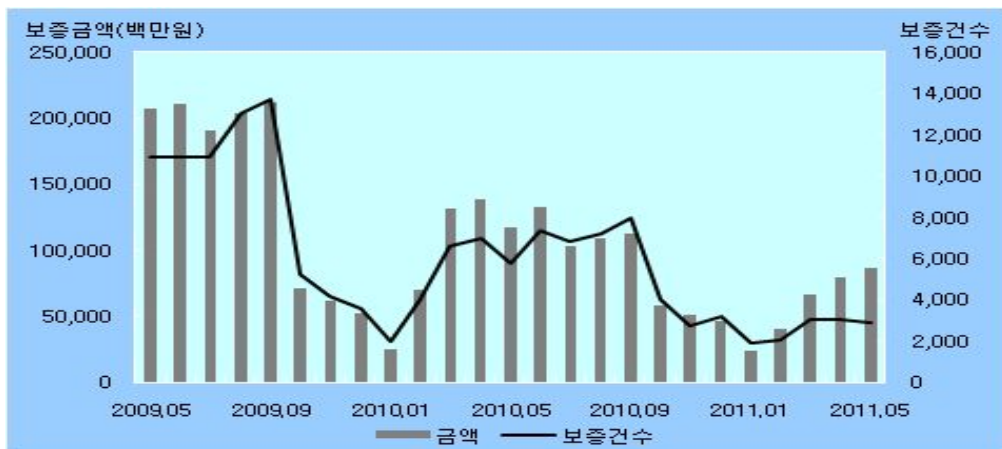
- 5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1.6%로 전월대비 1.7%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2.9%로 0.3%p 증가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1.1%로 전월대비 3.9%p 감소하였으나, 건수기준 5.0%로 전월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3%, 건수기준으로는 2.1%로 전월대비 각각 2.2%p 증가, 0.3%p 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 분		2011. 3	2011. 4	2011. 5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 수	2,877	2,781	2,658	-123
	비 율	94.7	92.6	92.9	0.3
	금 액	58,040	63,693	70,501	6,808
	비 율	88.2	79.9	81.6	1.7
소기업	건 수	95	151	143	-8
	비 율	3.1	5.0	5.0	0.0
	금 액	4,785	11,987	9,632	-2,355
	비 율	7.3	15.0	11.1	-3.9
중기업	건 수	66	72	61	-11
	비 율	2.2	2.4	2.1	-0.3
	금 액	2,966	4,033	6,279	2,246
	비 율	4.5	5.1	7.3	2.2
합 계	건 수	3,038	3,004	2,862	-142
	비 율	100	100	100	0
	금 액	65,787	79,711	86,412	6,701
	비 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서울의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수출은 46.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109.7억 달러로 9.8% 증가
- 5월 전국의 수출은 475.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하였고, 수입은 453.9억 달러로 3.1% 증가

## ■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00,428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131,566천 달러에 달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905	3,626	4,589	4,828	4,693	-135	-2.8	
	수입	8,547	8,716	10,997	9,990	10,974	984	9.8	
전국	수출	38,888	38,168	48,065	49,153	47,581	-1,572	-3.2	
	수입	34,854	36,228	45,390	44,015	45,399	1,384	3.1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5월		2011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905	76.2	4,693	20.2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89	3.0	600	54.4
2	자동차부품	358	67.4	376	5.2
3	반도체	193	12.4	254	31.1
4	편직물	206	-0.9	241	17.4
5	합성수지	189	21.9	215	13.8
6	합성고무	108	7.9	197	82.7
7	고무제품	143	11.0	188	32.2
8	무선통신기기	130	-8.1	186	43.6
9	인조장섬유직물	82	20.2	113	36.9
10	플라스틱 제품	77	14.7	107	38.8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54월		2011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8,547	54.8	10,974	28.4
1	석유제품	715	63.3	1,132	58.3
2	반도체	693	18.6	726	4.7
3	컴퓨터	504	9.1	591	17.3
4	항공기 및 부품	257	279.9	452	75.5
5	무선통신기기	265	34.2	305	15.2
6	철강판	212	102.4	305	43.6
7	자동차	257	4.7	277	7.7
8	의류	193	-4.6	264	36.7
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7	48.7	247	25.8
10	플라스틱 제품	225	20.2	238	5.9

자료: 무역협회